아라리오갤러리 서울 김병호, 《탐닉의 정원》 KIM Byoungho, *Lost in Garden*



아라리오갤러리 서울(1층) 전시전경 ⓒ KIM Byoungho.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전시제목 : 탐닉의 정원(Lost in Garden)

참여작가 : 김병호(b. 1974)

전시일정 : 2024.12.26 (목) - 2025.02.08 (토)

전시장소 :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종로구 율곡로 85) B1-1F, 3F

전시작품 : 조각 15점

[문의]

박미란 팀장 E. miran.park@arariogallery.com 이상미 매니저 E. sangmi.rhee@arariogallery.com

1. 전시개요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은 2024년 12월 26일(목)부터 2025년 2월 8일(토)까지 조각가 **김병호**(b. 1974)의 개인전 《**탐닉의 정원(Lost in Garden)**》을 개최한다. 김병호는 금속을 주 재료로 삼아 심미적 조형이 돋보이는 조각 및 설치 작품을 제작한다. 섬세하게 계획된 설계 도면에 기반하여 철저히 분업화된 생산시스템 속에서 진행되는 김병호의 작업 과정은 현대 사회의 일면을 투영한다. 동시대 사회 구조에 깃든 현대인으로서, 기계적인 정교함과 현혹적으로 아름다운 예술행위를 결합하며 새로운 조각의 형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에게 있어 예술 작품이란 규범, 규칙과 체계 등 사회적 합의에 의해만들어지는 제품과 유사성을 지니는 대상이다. 김병호의 작품세계는 합리주의에 기반하여 구축된 문명사회 속 인간의 삶과 심리에 관한 철학적 질문을 떠올리도록 한다. 김병호는 내년 중 홍콩 및 중국선전에서의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2. 전시구성 및 작품소개

※ 출품작 고화질 이미지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저작권 표기를 부탁 드립니다.
ⓒ KIM Byoungho.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57개의 수직 정원〉, 2024, 스테인레스 스틸, 크롬도금, 92 x 60 x 274(h) cm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의 3개 층에서 여는 이번 전시는 작가의 대표작 및 신작을 포함하여 다양한 규모의 조각 작품 15점을 선보인다. 자연을 인위적으로 가공하여 조성한 '정원'에 자신의 조형 원리를 빗대는 작가는 금속 모듈들을 조형의 기초 단위처럼 활용하여 삼차원 공간 안에서 구성의 미학을 탐구한다.

지하 1층과 1층에서는 작가가 '문명의 혹'이라고 부르는 금속 타원구 형태의 조각들을 조명한다. 지하 1층에 가로 놓인 <수평 정원>(2018)은 천장부로부터 늘어뜨린 가는 줄에 거대한 몸을 맡긴 채 공중에 뜬 모습으로, 바닥면에 드리운 다채로운 그림자를 만들어낸다. 1층에는 두 개의 형태로 구성된 회전형 기계 형태의 작품 <두 개의 충돌>(2024)이 전시된다. 거울같은 은빛과 흑연 같은 먹빛의 표면을 지닌 두 모듈이 각자의 회전축을 중심 삼아 상반된 방향으로 회전한다. 방사형의 은빛 조각 <57개의 수직 정원>(2024)은 이른바 '문명의 혹'으로 불리는 둥근 금속 타원구가 직선형구조 위에 빼곡히 맺힌 찬란한 형상을 선보인다.



〈**수평 정원**〉, 2018, 청동, 160 x 680 x 160(h) cm



〈두 개의 충돌〉, 2024, 스테인레스 스틸 진공증착, 334.5 x 242 x 105(h) cm

3층에서는 평면 및 선의 조형성에 주목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4점의 <정원의 단면>(2024) 연작은 공간에서거나 누운 자세를 취한다. 무광택의 검은색 피막을 입은 조각들은 전시 공간과 대비를 이루며 곡면의 조형성을 강조한다. 각각의 형태 윤곽 부분에 놓인 절단면 모서리를 매끈하게 연마하여, 본연의 알루미늄 재질을 드러내는 은빛 선의 요소를 품도록 했다. 단면을 본다는 것은 인간의 호기심과 해석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대상을 절단하고 평면으로 드러내는 행위로, 내부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 탐구를 의미한다. 평면성을 극대화하여 단면의 두께를 강조한 일련의 조각들은 타원구 형태에서 느껴지는 입체적 화려함과는 대조적으로 현대 물질문명을 성찰하는 작가의 시선을 담고 있다. 또 다른 작품인 <아홉 번의 관찰>(2024)은 은빛과 검정의 원판들이 겹겹이 쌓여 구성된 평면적 조형성이 돋보이는 조각이다. 서로를 바라보고 관찰하는 아홉 개의 단면은 반사와 투영을 통해 평면에서 입체적 형태로 변화하며 새로운시각적 경험을 제시한다. 한편, <323개의 가시>(2024)는 선적 요소를 강조한 작품이다. 다양한 형태와 질감으로 마감된 금속 조각들은 공간 내에서 고유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낸다.



〈정원의 단면-4SMB1〉, 2024, 알루미늄에 아노다이징, 160 x 120 x 180(h) cm



(아홉 번의 관찰), 2024, 스테인레스 스틸, 레진, 151 x 110 x 150(h) cm



〈**323개의 가시**〉, 2024, 알루미늄, 황동, 우레탄코팅, 48 x 26 x 18.5(h) cm

3. 작가소개

김병호는 2000년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후 2002년부터 예술공학을 연구했으며 2004년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공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청남대 호수영미술관(청주, 2024), K11 미술관(선양, 중국, 2022; 우한, 중국, 2023), WWNN(서울, 2023), 아라리오갤러리(서울, 2011; 천안, 2013; 상하이, 2018), 소마미술관(서울, 2010), 프랑크푸르트 문화부 스튜디오(프랑크푸르트, 독일, 2009) 등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제3회 지난국제비엔날레》(2024), 《전남수묵비엔날레》(2023), 《영산강국제설치미술제》(2023),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2021),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2014), 《징안국제조각프로젝트》(2012) 등에 작품을 선보여 주목 받았으며 포항시립미술관,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캔파운데이션, 경주솔거미술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서울대학교미술관, 포스코미술관, 사치갤러리(런던, 영국) 등이 연 단체전에 참여했다. 국립현대미술관(한국), 아모레퍼시픽미술관(한국), 프랑크푸르트시 문화부(독일), 서울대학교미술관(한국), 아라리오뮤지엄(한국), 정부종합청사(한국), 상해 판롱천지(Panlong Tiandi, 중국), 뉴월드 개발 유한회사(New World Development, 홍콩), 현대자동차(한국) 등이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4. 전시서문

기계정원: 역방향의 컴포지션

박미란 | 아라리오갤러리 팀장

금속 정원수들이 장소 안에 들어선다. 유일한 하나이자 복제된 여럿으로서, 각자의 주형에서 태어난 조각은 기계 문명의 은유이자 대량생산의 표상이다. 김병호의 기계정원은 조형의 기초 요소를 암시하는 금속 모듈을 재료 삼아 가꾸어진다. 문명사회의 질서정연한 풍경 속에서 구현 가능한 기하학적 미감을 탐구하는 일이다.

정원이란 인간이 길들일 수 있는 규모의 작은 우주다. 작가는 우거진 숲을 다듬어 인공 정원을 가꾸듯 기계 문명 특유의 조형적 가치를 탐닉한다. 시야에 가장 먼저 포착되는 것은 빼곡히 돋아난 빛점의 집합이다. 주위의 광원을 반사하는 찬란한 금속 타원구들이 보는 자의 주의를 사로잡는 탓이다. 시선은 총체적 전경으로부터 미시적 구조를 향하여 나아간다. 부풀어 오른 구체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지탱하는 선형의 기둥을 지나, 원자재인 금속의 표면을 가늠하는 눈길의 경로를 따라서다. 눈부신 전경 가운데 선과 면의 요소는 부피의 그림자 뒤로 감추어진다.

탐미적 형태

수직 또는 수평의 정원으로 명명된 일련의 조형을 거꾸로 보자. 재단된 종이 위 드로잉과 설계도로부터 정제된 금속의 단면에 이르기까지, 김병호의 기계정원 속 입체는 모두 규격화된 평면으로부터 일어선다. 납작한 철재는 공간을 가로지르는 원통형 획으로서 가공되고, 그 뚜렷한 금속 선의 끝자락마다 둥근 구의 형상이 숨처럼 차오른다. 삼차원 공간 안에 구성의 미학을 펼치고자 하는 형상은 면에서 선으로, 그리고 더욱 커다란 점으로 나아가며 확장된 부피를 획득한다.

낱낱의 모듈은 결합의 방식과 자세의 균형을 달리하며 매번 다른 기하학적 형상이 된다. <수평 정원>(2018) 속 조형의 얼개를 이루는 직선들이 선형적인 도시 풍경을 상징하는 도상이라면, 그로부터 불거져 나온 덩어리들은 비선형의 변종이자 현혹적 미감을 추구하는 욕망의 발현이다. 방사형의 은빛 조각 <57 개의 수직 정원>(2024)에 촘촘히 맺힌 금속 타원구들, 이른바 문명의 혹들은 곧은 펜 선이 닿은 마지막 자리에 짙은 웅덩이가 자연스레 고이듯 직선과 곡선이 유기적으로 융합하며 부풀어 오른 모양새를 띤다.

규격화된 철재는 곡선을 품은 형태로 재가공됨에 따라 생산 체계 속 부품으로서의 기능성을 잃는 한편 새로운 구조 내에서 작동하는 미적 가치를 획득한다. 원만한 곡률의 융통성은 경직된 금속으로 하여금 보다 풍요로운 입체가 되도록 한다. 평평한 단면은 반추형의 부피로 팽창하고, 반듯한 직선은 유연한 호의 형태로 휘어진다. 높은 곡률의 형태일수록 자신이 속한 현재의 풍경을 광활하게 머금는다.

역학적 관계

양 끝자락에 둥근 타원구를 묵직하게 머금은 한 쌍의 모듈 <두 개의 충돌>(2024)은 바닥으로부터 낮게

떠오른 회전형 기계다. 하나의 몸은 스테인리스 스틸의 은빛을, 또 다른 하나는 흑연 같은 먹빛 피막의 아스라한 광택을 내비치는 두 형태가 각각 정방향과 역방향의 원형 궤도를 따라 유영한다. 상이한 광물의 빛깔을 띤 쌍생아들은 낮과 밤이 끝없이 서로를 물들이듯 상대의 곁에 다가서다 물러나기를 반복한다.

영원히 맞닿지 않을 몸짓을 바라보며 하나의 중력장 위에 놓인 두 개의 은하를 상상한다. 거대한 마찰에 의하여 수없이 부서지고 마모된 이후에야 비로소 서로 간의 균형을 찾은 매끈한 행성들의 역학을 말이다. 작품 내에서 충돌하는 것은 둘 사이의 상상된 중력이다. 정밀한 기계적 구조에 의하여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힘의 끈끈한 긴장이 분리된 형태들을 하나의 회집체로서 묶어 놓는다. 정교한 짜임새의 우주 공간에 깃든 존재들의 관계망을 떠올린다. 셀 수 없이 많은 점과 선, 면이 교차하는 거대한 설계도를 상상하는 것이다.

김병호의 조형 언어는 기계 문명과 자연세계의 구성 원리를 섬세하게 중첩시킨다. 인위적 공정에 의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된 조형의 최소 단위들은 세포가 생명체를 구성하듯 형상이 되고, 개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듯 복합적 풍경을 구축한다. 기계정원 속 조경수들은 설계도면 바깥에 놓인 현실의 장소와 상호적 관계를 구축하는 입체로서 거듭난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현실의 물리적 공간과 관계 맺으면서다.

삼차원의 공간구성

곡면의 기하학적 구성을 펼쳐 놓은 <정원의 단면>(2024)은 면의 요소를 전면에 내세운다. 두께를 지닌 금속 판을 각기 다른 곡률로 구부려 정교하게 결합한 조각의 몸체는 장소 안에 우뚝 서거나 가로누운 자세를 취함으로써 유기적 자연의 풍경을 은유한다. 검은 피막을 입은 잎사귀 형태의 단면들이 조형성을 강조하는 한편, 매끈하게 연마된 윤곽부의 가느다란 선이 본연의 재질을 은연중 내비친다. 형태의 능선을 타고 흐르는 조명의 빛은 가공된 재단 면 모서리에 이를 때마다 섬광처럼 가파르게 선명해진다.

한편 직선으로 점철된 <323 개의 가시>(2024)는 가느다란 금빛 가시들이 내면의 직육면체를 모태 삼아 사방으로 솟아오른 모습을 선보인다. 면적을 빼곡하게 디딘 선들이 공간의 방위를 세세한 각도로 쪼개어 가리키는 가운데 내부의 다면체는 산란하는 금빛 선들의 그늘 아래 은신한다. 최초의 평면들은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 다가설 수 없는 깊이 축 아래로 가라앉는다.

<아홉 번의 관찰>(2024)에서 원형의 모듈들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열된다. 측면부 모서리를 정면에 내세워 원추형으로 부푼 두께를 드러낸 채다. 크고 작은 아홉 개의 눈동자들이 서로를 투영하며 각기 다른 반사광을 만들어 낸다. 나오는 동선에서 투박한 만듦새의 청동거울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2024)를 마주한다. 오래된 청동의 녹슨 요철을 닦아낸 부분은 가공과 재가공 전후의 시간대에 놓인 금속의 중간적상태를 드러낸다. 말끔한 평면이 되도록 인위적으로 매만진 중심부만이 현재를 거울처럼 비추어낸다. 그 평탄함의 광택으로부터 기계문명 시대의 가공된 분재들을 연상한다.

양가적 시선

기계정원을 위한 설계에는 전복된 관점에서의 가설이 선행된다. 외양적 표피가 언제나 내재된 구조에 앞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차원의 도면으로부터 삼차원의 입체를 향하여 차오르는 김병호의 조각은 물신주의적 사회의 양면적 초상이다. 황홀하게 빛나는 수백의 점들, 문명의 혹이 드러내는 탐미적 욕망은 냉소와 찬미의 태도를 동시에 표방하는 까닭에 양가적이다. 외피 아래 구조를 역방향의 순서로 탐색한다. 기계정원의 유려한 정경, 그 세속적 아름다움의 불가피한 이중성이 비롯된 경로를 추적하는 시선으로서다. 모든 가치는 현재의 지평을 근거 삼아 일어선다. 경직된 소재로부터 유연한 심미안을 발휘하고자 하는 김병호의 조각들이 각자의 빛나는 부피를 내비친다. 가공된 세계의 특수한 미학을 설득하는 동시대성의 기하학적 투영체로서 말이다.

5. 전시전경

※ 출품작 고화질 이미지는 웹하드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저작권 표기를 부탁 드립니다. ⓒ KIM Byoungho.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아라리오갤러리 서울(지하 1층) 전시전경



아라리오갤러리 서울(3층) 전시전경



아라리오갤러리 서울(1층) 전시전경



아라리오갤러리 서울(3층) 전시전경

6. 작가약력

김병호

1974 년 한국, 서울 출생

학력

2004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영상공학과 Technology Art 전공 졸업

200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판화과 졸업

주요 개인전

- 2024 탐닉의 정원,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서울, 한국 여름 날 아틀리에, 청남대 호수영미술관, 청주, 한국
- 2023 Enchanted Memories, WWNN, 서울, 한국 The Climax, K11 미술관, 우한, 중국
- 2022 The Climax, chi K11 미술관, 선양, 중국
- 2018 Enchantment,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 상하이, 중국
- 2013 Garden in the Garden, 아라리오갤러리 천안, 천안, 한국
- 2011 A System,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삼청, 서울, 한국
- 2010 Invisible Object, 소마미술관 드로잉센터, 서울, 한국 Fantastic Virus, 터치아트 갤러리, 헤이리, 파주, 한국
- 2009 Two Silences, 프랑크푸르트 문화부 스튜디오, 독일 & 국립고양미술스튜디오, 한국
- 2008 Assembled Fantasy, 웨이방갤러리, 서울, 한국
- 2006 Their Flowers, 쿤스트독갤러리, 서울, 한국
- 2005 Magnet Installation, 한전프라자갤러리, 서울, 한국

주요 단체전

- 2024 인공지능 시대, 제 3 회 지난 국제비엔날레, 지난미술관, 지난, 중국 언박싱 프로젝트, VSF, 로스엔젤레스, 미국 스틸 플로우,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한국 유기생활,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한국 언박싱 프로젝트 3: 마케트, 뉴스프링프로젝트, 서울, 한국
- 2023 정. 중. 동,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흐름, 열 개의 탄성, 영산강국제설치미술제 2023, 나주, 한국 물드는 산, 멈춰선 물 – 숭고한 조화 속에서, 2023 전남수묵비엔날레, 목포/진도, 한국 정물도시, 세화미술관, 서울, 한국
- 2022 얇은 창과 두꺼운 집, 김병호 이정배 2 인전, 오래된 집, 캔파운데이션, 서울, 한국
- 2021 유기적 구조로서의 우주, 경주엑스포 솔거미술관 야외정원, 경주, 한국함께 열(+)다, 새롭게,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 한국Drawing Box,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 2020 BEYOND THE SCULPTURE,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 상하이, 중국 Time/Speed, 홍콩중문대학, 심천, 중국
- 2019 Facula: OCT 청두뉴미디어아트, Happy Valley Plaza, 청두, 중국 조각_조각,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APMA, CHAPTER ONE,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서울, 한국

생.활(生.活),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한국 花花世界, 兴业太古汇, 상하이, 중국

- 2018 Flowing Books Temporality, OCAT 미술관, 난징, 중국 알고리즘 소사이어티, 광주미디어아트페스티벌, 포항, 한국 호랑이 꼬리를 잡다,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포항, 한국
- 2017 The New Vision: 바우하우스에서 인공지능까지, M 컨템포러리, 서울, 한국 APMAP 2017 jeju mystic birth, 서광다원/오설록, 제주 Voice of Asia, 아라리오갤러리 상하이, 상하이, 중국 색채의 재발견, 뮤지엄 SAN, 원주, 한국
- 2016 매개기억(媒介記憶), 송광사(松廣寺), 순천, 한국 DNA, 대구미술관, 대구, 한국
- 2015 인조선경(人造仙境), 소주금계호미술관, 소주, 중국 무심(無心),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PrøveRommet, Landmark, 베르겐, 노르웨이 철이철철, 포스코미술관, 서울, 한국 Tools for a Break, 갤러리 히더, 뮌헨, 독일
- 2014 코리아 투머로우 2014,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한국 청춘예찬,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서울, 한국 포항스틸아트페스티벌, 해도근린공원, 포항, 한국 By Destiny - 개관전, 아라리오뮤지엄 탑동시네마, 제주, 한국 소리, 공간을 조각하다,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한국 APMAP 2014 jeju BETWEEN WAVES, 서광다원/오설록, 제주, 한국 브릿지, 연결된 미래,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울산, 한국 3D 프린팅&아트,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국 Re-imagination, 일우스페이스, 서울, 한국
- 2012 창원조각비엔날레, 돝섬, 창원, 한국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연미산공원, 공주, 한국 TINA B. 현대미술 페스티벌, 프라하, 체코 징안 국제 조각 프로젝트, 징안조각공원, 상하이, 중국 코리안 아이, 사치갤러리, 런던, 영국 Brain, 사비나미술관, 서울, 한국 Interface, 의정부 예술의전당, 의정부, 한국 Artists with Arario 2012,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청담, 서울, 한국
- 2011 Ceramic Art & Technology, 한가람미술관, 서울, 한국 움직이는 미술관 2,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미디어극장, 갤러리정미소, 서울, 한국 MoA Invites,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한국
- 2010 제 2 회 인천국제디지털아트페스티벌, 투모로우시티, 송도, 한국 The Gate, 부띠크모나코미술관, 서울, 한국 레지던스퍼레이드,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한국 기하학적 환영, 일주&선화갤러리, 서울, 한국 21 세기의 첫 십 년,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분관, 서울, 한국
- 2009 포항시립미술관 개관전-사이버네틱스,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한국 No,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한국 Space A, 공간화랑, 서울, 한국

Artists In Residence, 아뜰리에프랑크푸르트 갤러리, 프랑크푸르트, 독일 6 회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만남을 찾아서, 예술의전당, 청주, 한국 Planet A 종의 출현,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 프로포즈 7 vol.4, 금호미술관, 서울, 한국 건축도자 Now & New, 클레이아크미술관, 김해, 한국 1 회 인천국제디지털아트페스티벌, 송도, 인천, 한국 제주도립미술관 개관전-숨비소리,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한국 멜라니리오 갤러리 개관전-Polarity, 멜라니리오갤러리, 낭트, 프랑스신나는 미술관: 키네틱 아트를 만나다,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한국 Home & Away, 국립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갤러리, 고양, 한국 新오감도,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 INTRO, 국립고양미술창작스튜디오 갤러리, 고양, 한국 서울디자인올림픽 주제전 'Design is Air', 서울올림픽주경기장, 서울, 한국

- 2008 서울디자인올림픽 주제전 'Design is Air', 서울올림픽주경기장, 서울, 한국 관훈갤러리 개관 30 주년 기념전 '지각과 충동', 관훈갤러리, 서울, 한국 창원아시아미술제 '후기도시인-길을 찾아서', 성산아트홀, 창원, 한국 서울리빙디자인페어 특별전 'Salon de Living', COEX, 서울, 한국
- 2007 Mixed and Matched, 빗트폼갤러리, 서울, 한국
- 2006 4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메르츠의 방', 서울시립미술관 남서울분관, 서울, 한국 1회 포스코스틸 아트 어워드, 포스코미술관, 서울, 한국 마술정원, 영은미술관, 광주, 한국 Who's who, 현대백화점 스카이돔, 서울, 한국 Space in Motion, 더스페이스갤러리, 서울, 한국
- 2005 세운상가프로젝트, 세운상가, 서울, 한국 Digiscape, 더스페이스갤러리, 서울, 한국
- 2004 Stream, 경기문화재단갤러리, 수원, 한국
- 2003 시간의 결정, 덕원갤러리, 서울, 한국 Beyond Images, 덕원갤러리, 서울, 한국 Video on Demand, 갤러리 PICI, 서울, 한국 New Frontier,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한국
- 2002 구색잡기, 영은미술관, 광주, 한국
- 2000 15 분의 시간, 백상갤러리, 서울, 한국
- 1999 Another World, 한원미술관, 서울, 한국

공공미술

- 2022Vertical Garden, 더라움펜트하우스, 서울, 한국236 Silent Propagations, 판용천지, 상해, 중국
- 2021 Neat and Tidy Garden, 삼성건설, 부산, 한국
- 2020 126 Silent Propagations, 한화건설, 여수, 한국 Vertical Garden, 대림건설, 대전, 한국 The Breath of the Waves, 국립해양과학관, 울진, 한국
- 2019 Vertical Garden, 대림산업, 서울, 한국 Silent Propagation, 한화 킨텍스, 일산, 한국
- 2018 Beautiful replication, 삼성건설, 서울, 한국
 Beautiful replication, 한화, 창원, 경남, 한국
 Triple garden, 한화벨버디어, 거제, 경남, 한국

Beautiful replication, 꿈에그린, 창원, 경남, 한국

2017 Garden in the city, 현대자동차 남부서비스센터, 서울, 한국 Triple Garden, 르메르디앙 호텔, 서울, 한국

Vertical Garden, 대림산업 아크로스퀘어, 서울, 한국

Second Host, 시그니엘 서울 호텔, 서울, 한국

2016 Three Different Paths, 세종문화회관, 서울, 한국 Doubts about the memory, SKMS연구소, 용인, 한국

Vertical Garden, 신세계백화점, 부산, 한국

2015 Colorful Stories, 농심본사, 서울, 한국

Garden, SK 뷰파크, 서울, 한국

2014 Vertical Garden, 래미안강남힐즈, 서울, 한국 Vertical Garden, 강남지웰홈스, 서울, 한국

Invisible Propagation, 그랜드하얏트호텔, 인천, 한국

Intrinsic Order, 롯데몰, 수원, 한국

2013 The Progression of Silence, 조니워커하우스, 서울, 한국

Radial Eruption, New World Development, 홍콩

Assembling for Eternity – HMC, 현대자동차 성내지점, 서울, 한국

2012 Assembling for Eternity, 정부세종청사, 세종, 한국

Aero-interface, 신세계백화점, 천안, 한국

Silent Propagation, IFC, 서울, 한국

Soft Crash, 청심평화월드센터, 가평, 한국

Twenty-five Silent Propagations, 중학원빌딩, 서울, 한국

2010 A Host, 포스코건설 사옥, 송도, 한국

퍼포먼스(with 'Assembled Fantasy')

2011 White Interfaces, 정미소갤러리, 서울, 한국 (사운드아티스트: 조은희)

2009 minimize to MAXIMIZE, 공간화랑, 서울, 한국

(사운드프로그래밍: Lobotomy (양정민, 김희수), 퍼포머: 김병호)

Continuum, 국립고양미술스튜디오, 고양, 한국 (솔로드럼아티스트: 양태석, 퍼포머: 화화)

2008 Flower Fire, 클럽oi, 서울, 한국 (퍼포머: 화화)

인더스트리얼 뮤직 퍼포먼스, 서울, 한국 (퍼포머: DJ Quartz)

<u>수상</u>

2011 제3회 서울문화투데이 문화대상 젊은예술가상, 한국

2006 제1회 포스코스틸아트 어워드 본선 작가, 포스코 청암재단, 한국

레지던시

2015 노르웨이 베르겐 Air Bergen 스튜디오, 한국

2009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4기 입주작가, 한국

2008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 문화부 스튜디오, 독일

국립고양미술스튜디오 5기 장기입주작가, 한국

주요 소장처

2021 'A Colloidal Body' 드로잉,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2019 Three Hundred Silent Pollens (2009),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

2018	A section of the Garden, 포항문화재단, 포항, 한국
2017	An Interface,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한국
	Mediated Memory 3SBCP,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용인, 한국
	Triangular Garden, 아라리오뮤지엄, 제주, 한국
2013	Soft Crash,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용인, 한국
2011	Radial Eruption 외 다수, 아라리오 천안, 한국
	A Colloidal Body, 일신문화재단, 서울, 한국
	Triffid, 서울대학교 미술관, 서울, 한국
2010	Triffid,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한국
	Horizontal Intervention, 선화예술문화재단, 서울, 한국
2009	The Weight of the Accumulation,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김해, 한국
	Drawing for Propagation Between Two Silences, 프랑크푸르트 시 문화부, 프랑크푸르트 암마인, 독일
	Sounds from the Sky, 멜라니리오 갤러리, 낭뜨, 프랑스
	Silent Monument,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한국

ARARIO GALLERY SEOUL

KIM Byoungho

Lost in Garden



Installation view at ARARIO GALLERY SEOUL (1F)
© KIM Byoungho.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Title : Lost in Garden

Artist : KIM Byoungho (b. 1974)

Dates : 26 Dec (Thurs) – 8 Feb (Sat) 2025

Venue : ARARIO GALLERY SEOUL (85 Yulgok-ro, Jongno-gu, Seoul, Korea 03058) B1, 1, 3F

Artworks : Total 15 works (sculptures)

[Contact]

ARARIO GALLERY SEOUL / T. +82 (0) 541-5701 / E. info@arariogallery.com

[Inquiries]

Miran PARK, Deputy Director / E. miran.park@arariogallery.com Sangmi RHEE, Exhibition Manager / E. sangmi.rhee@arariogallery.com

1. Exhibition Overview

ARARIO GALLERY SEOUL presents **KIM Byoungho**'s (b. 1974) solo exhibition, *Lost in Garden*, from 26 December 2024 (Thu) to 8 February 2025 (Sat). KIM Byoungho primarily works with metal as his main medium, creating sculptures and installations distinguished by their striking aesthetic forms. His meticulous creative process, rooted in detailed design blueprints and executed within a highly systematized production framework, reflects aspects of contemporary society. Immersed in today's social structures, he merges mechanical precision with captivating artistic expression to realize new forms of sculpture. To him, an artwork resembles a product shaped by societal conventions, norms, and systems. His oeuvre raises philosophical questions about human life and the psyche within a civilization built on rationalism. After the solo exhibition in Korea, KIM is expected to have solo exhibitions in Hong Kong and Shenzhen, China in 2025.

2. Exhibition Theme and Works



57 Vertical Gardens, 2024, Stainless steel, chrome plating, 92 x 60 x 274(h) cm

The exhibition at ARARIO GALLERY SEOUL spans 3 floors and features 15 works of varying scales, including both representative and newly created pieces. The artist likens his sculptural principles to an artificially cultivated "garden," using metal modules as fundamental building blocks to explore the aesthetics of composition within three-dimensional space. Abstract forms and surfaces, finished with diverse textures, interact to achieve a unique balance and harmony within the exhibition space.

On the basement and ground floors, works with rounded metal ellipsoids, referred to as "lumps of civilization," are predominantly featured. On the basement level, *Horizontal Garden* (2018) floats midair, its massive form suspended by thin wires from the ceiling. The diverse shapes of shadows cast on the floor extend the sculpture's presence into the surrounding space. On the ground floor, *Two Collisions* (2024), a rotating machine-like work composed of two forms, is displayed. Two modules, one with a mirrored silver surface and

the other with a graphite-like black finish, rotate in opposite directions on their respective axes. Nearby, the radiant silver sculpture *57 Vertical Gardens* (2024) presents a striking array of rounded metal ellipsoids—referred to as "civilization's excrescences"—densely perched on linear structures.



Horizontal Garden, 2018, Brass, 160 x 680 x 160(h) cm



Two Collisions, 2024, Stainless steel, vacuum plating, 334.5 x 242 x 105(h) cm

The third floor highlights works focused on planar and linear elements. Notably, the four pieces from the *A Section of the Garden* (2024) series adopt standing or reclining postures within the space. These sculptures, coated in matte black finishes, contrast with the exhibition space, accentuating the sculptural qualities of their curves. The edges of the cut surfaces along the contours of each form have been smoothly polished, revealing the natural aluminum material to create silver lines as a defining element. Observing a cross-section signifies an act of cutting through an object to reveal its interior on a plane, fulfilling human curiosity and the desire for interpretation, offering a visual exploration of internal structures. These works emphasize flatness and highlights the thickness of the cross-sections, in contrast with the three-dimensional splendor of the works formed with rounded metal ellipsoids, and reflects the artist's contemplation on modern material civilization. *9 Observations* (2024), also features planes and form, through layers of silver and black discs stacked together. As the nine cross-sections observe and reflect each other, there is transition from flat surface to three-dimensional form, offering a novel visual experience. The sculpture *323 Thorns* (2024) strongly focuses on linear elements. These abstract metal sculptures, finished with a variety of textures, establish a unique balance and harmony within the space.



A Section of the Garden-4SMB1, 2024, Anodizing on aluminum, 160 x 120 x 180(h) cm



9 Observations, 2024, Stainless steel, resin, 151 x 110 x 150(h) cm



323 Thorns, 2024, Aluminum, brass, urethane coating, 48 x 26 x 18.5(h) cm

3. Artist Introduction

KIM Byoungho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s College of Fine Arts in 2000 and began exploring art engineering in 2002. He earned a Master's degree in Technology Art from Chung-Ang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Advanced Imaging Science, Multimedia & Film in 2004. His solo exhibitions have been held at the Cheongnamdae Hosuyeong Art Museum (Cheongju, Korea, 2024), K11 Art Center (Shenyang, China, 2022; Wuhan, China, 2023), WWNN (Seoul, Korea, 2023), ARARIO GALLERY (Seoul, Korea, 2011; Cheonan, 2013; Shanghai, China, 2018), Soma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0), and Gastatelier der Stadt Frankfurt am Main (Frankfurt, Germany, 2009). He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notable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3rd Jinan International Biennale* (2024), *Jeonnam International Sumuk Biennale* (2023), *Yeongsan River Art Festival* (2023), *Pohang Steel Art Festival* (2021), *Taehwa River Eco Art Festival* (2014), and the *Jing'an International Sculpture Project* (2012). Additionally, his work has been featured in group exhibitions held at institutions such as Pohang Museum of Steel Art,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Can Foundation, Gyeongju Solgeo Art Museum, Amorepacific Museum of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POSCO Art Museum, and the Saatchi Gallery (London, UK). The

ARARIO GALLERY [IMMEDIATE RELEASE]

artist's works are included in the collections of prestigious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Korea), Amorepacific Museum of Art (Korea), KulturPortal Frankfurt (Germany), Seoul National

University Museum of Art (Korea), ARARIO MUSEUM (Korea), Government Complex (Korea), Shanghai Panlong Tiandi

(China), New World Development (Hong Kong), and Hyundai Motor Company (Korea).

4. Curatorial Essay

Machinery Garden: Reverse Composition

Miran PARK | Deputy Director, ARARIO GALLERY

Metallic garden trees stand within the space. Singular yet replicated, these sculptures, born from their unique molds, serve

as metaphors for mechanical civilization and symbols of mass production. KIM Byoungho's machinery garden is cultivated

using metallic modules, hinting at the foundational elements of sculpture. It explores geometric aesthetics that unfold

within the orderly landscapes of civilized society.

A garden is a human-scaled cosmos that can be tamed. Just as an overgrown forest is pruned to create an artificial garden,

the artist indulges in the sculptural values unique to mechanical civilization. What first catches the eye is the cluster of

shimmering points of light, as radiant metal elliptical spheres reflecting surrounding light sources captivate the viewer. The

gaze shifts from the overall panorama to microscopic structures—from the inflated spheres to the linear pillars supporting

them, tracing the surface of raw metal. Among the dazzling scenery, lines and planes subtly recede behind the shadows of

volume.

Aesthetic Forms

Let us adopt an inverted perspective toward the Vertical Gardens and Horizontal Gardens series. From the initial sketches

on paper to the refined metallic cross-sections, every three-dimensional form in KIM Byoungho's machinery garden rises

from standardized planes. Flat steel plates are processed into cylindrical strokes traversing space, with round spheres

swelling like breath at the ends of these pronounced metallic lines. These shapes, seeking to unfold the aesthetics of

composition within three-dimensional space, expand from planes to lines and finally into larger dots, acquiring volume.

Individual modules, varying in their methods of assembly and balance of posture, transform into distinct geometric forms

each time. In Horizontal Garden (2018), the straight lines forming the framework of the sculptures symbolize the linear

urban landscape, while the protruding masses manifest as nonlinear variants—a pursuit of dazzling aesthetic appeal. The

tightly clustered metallic ellipses in 57 Vertical Gardens (2024), referred to as "lumps of civilization," organically merge

straight lines and curves, swelling naturally as if dense pools form at the endpoints of pen strokes.

As standardized steel is reprocessed into curved forms, it loses its functionality as a component within the production

system, gaining instead aesthetic value within a new structure. The flexibility of smooth curves allows rigid metal to evolve

- 15 -

into richer three-dimensional forms. Flat surfaces expand into reflective volumes, and rigid straight lines bend into graceful arcs. The higher the curvature, the more expansively these forms reflect their surrounding landscapes.

Dynamic Interactions

A pair of modules, *Two Collisions* (2024), each bearing a weighty, rounded oval at their ends, form a low-floating rotational mechanism that hovers just above the floor. One body gleams with the silver sheen of stainless steel, while the other exudes a faint graphite-like luster, coated with a dark patina. These two forms glide along circular trajectories in opposite directions—one clockwise and the other counterclockwise. Resembling twin entities in different mineral hues, they continuously approach and retreat from one another, mirroring the endless interplay of day and night, perpetually influencing and coloring each other.

Watching their perpetual, untouched motion, one imagines two galaxies within a single gravitational field. After countless collisions and abrasions, these polished celestial bodies achieve equilibrium. What collides in the work is the imagined gravity between the two. The adhesive tension of forces, operating bi-directionally through precise mechanical structures, binds the separated forms into a cohesive entity. It evokes a network of relationships within a meticulously woven cosmic space—an immense blueprint where countless dots, lines, and planes intersect.

KIM Byoungho's sculptural language delicately overlaps the principles of mechanical civilization and natural systems. The smallest units of sculpture, organically connected through artificial processes, form shapes like cells composing living organisms, creating complex landscapes akin to individuals forming communities. The trees within the machinery garden are reborn as three-dimensional forms that establish reciprocal relationships with the physical space outside the blueprint, each interacting uniquely with its surroundings.

Three-Dimensional Spatial Composition

A Section of the Garden (2024), a geometric composition of curved surfaces, highlights the element of planes. The sculpture's body, constructed by meticulously bending thick metal sheets into varying curvatures, stands tall or reclines, metaphorically evoking natural landscapes. While the black-coated, leaf-shaped cross-sections emphasize sculptural form, the finely polished edges subtly reveal the material's intrinsic qualities. The light streaming along the ridges of the forms intensifies sharply at the machined edges, gleaming like flashes.

323 Thorns (2024) showcases sharp golden spikes erupting from an interior rectangular core in all directions. The densely packed lines marking the surface fragment the space into intricate angles, while the inner polyhedron retreats into the shadows cast by the scattered golden lines. The initial planes sink into the depth axis, inaccessible both visually and tactilely. In 9 Observations (2024), circular modules are aligned at regular intervals, presenting their side edges to reveal the thickness inflated into cone-like shapes. The nine large and small eyes reflect one another, producing varied reflective glows. At the exit, a coarse bronze mirror Seeing is Believing (2024) awaits. The sanded-down sections of the aged bronze,

rid of its corroded texture, reveal the intermediate state of the metal between its pre- and post-processing phases. Only the polished center reflects the present like a mirror, recalling the pruned bonsai trees of the mechanical age.

Ambivalent Perspective

The design of the machinery garden is predicated on hypotheses from an inverted perspective, as external surfaces always precede internal structures. Rising from two-dimensional blueprints to three-dimensional volumes, KIM Byoungho's sculptures embody a dualistic portrait of a materialistic society. The dazzling clusters of hundreds of points—"lumps of civilization"—express an ambivalent stance of both cynicism and admiration toward aesthetic desire. The process of exploring structures beneath their external surfaces traces the route by which the inevitable duality of this worldly beauty emerges. All value arises from the horizons of the present. KIM Byoungho's sculptures, seeking to wield a flexible aesthetic from rigid materials, reveal their own luminous volumes. As geometric projections of contemporaneity, they persuade viewers with the distinctive aesthetics of a processed world.

5. Installation View

Please use the Google Drive link on the first page to access and download the individual images.
 Credit for all Artwork Images: © KIM Byoungho. Courtesy of the Artist and ARARIO GALLERY.



Installation view at ARARIO GALLERY SEOUL (B1F)



Installation view at ARARIO GALLERY SEOUL (3F)



Installation view at ARARIO GALLERY SEOUL (1F)



Installation view at ARARIO GALLERY SEOUL (3F)

6. CV

KIM Byoungho

Born in 1974, Seoul, Korea

EDUCATION

2004 M.S in Major of Technology Art, Graduate School of Advanced Imaging Science, Multimedia & Film,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2000 B.F.A in Dept of Printmaking, College of Fine Arts,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24	Lost in Garden,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Atelier on a Summer Day, Cheongnamdae Hosuyeong Art Museum, Cheongju, Korea
2023	Enchanted Memories, WWNN, Seoul, Korea
	The Climax, chi K11 Art Center, Wuhan, China
2022	The Climax, chi K11 Art Center, Shenyang, China
2018	Enchantment, ARARIO GALLERY Shanghai, Shanghai, China
2013	Garden in the Garden, ARARIO GALLERY Cheonan, Cheonan, Korea
2011	A System, ARARIO GALLERY Seoul, Seoul, Korea
2010	Invisible Object,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OMA), Seoul, Korea
	Fantastic Virus, TouchArt Gallery, Paju Heiri, Korea
2009	Two Silences, Gastatelier der Stadt Frankfurt am Main, Frankfurt am Main, Germany & National Art Studio,
	Goyang, Korea
2008	Assembled Fantasy, Weibang Gallery, Seoul, Korea
2006	Their Flowers, KunstDoc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05

The Age of Human Wisdom, The 3rd Jinan International Biennale, Jinan Art Museum, Jinan, China

The Unboxing Project, VSF, Los Angeles, USA

Steel Flow, Pohang Museum of Steel Art, Pohang, Korea

Magnet Installation, KEPCO Plaza Gallery, Seoul, Korea

Yugi Culture, Ewha Womans University Museum, Seoul, Korea

UNBOXING PROJECT 3: Maguette, New Spring Project, Seoul, Korea

2023 Moving in Stillness,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OMA), Seoul, Korea

Flow, Ten Excitements, Yeongsan River Art Festival 2023, Naju, Korea

Flowing mountain, Suspended water – in the sublime harmony, Jeonnam International Sumuk Biennale 2023, Mokpo & Jindo, Korea

STILL-LIFE STILL-CITY, Sehwa Museum, Seoul, Korea

2022 Thin Window in Thick House, The Old House, Can Foundation, Seoul, Korea

2021 The Universe as an Organic Structure, Gyeongju Expo Solgeo Art Museum, Gyeongju, Korea

Pohang Steel Art Festival, Pohang, Korea

Drawing Box,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OMA), Seoul, Korea

2020 Time/Speed, The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 (CUHK), Shenzhen, China

2019 Facula: OCT Chengdu New Media Exhibition (光斑—OCAT成都新媒体艺术展), Happy Valley Plaza, Chengdu,

China

Pieces_Sculpture,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OMA), Seoul, Korea

APMA, CHAPTER ONE, Amore Pacific Museum of Art, Seoul, Korea

Vibrancy and Life, Jeju Museum of Art, Jeju, Korea

The Waveland, Xingye Taikoo Hui, Shanghai, China

2018 Flowing Books – Temporality, OCAT Nanjing Museum, Nanjing, China

Algorithm Society, Gwangju Media Art Festival, Asia Culture Center, Gwangju, Korea

Catch the tiger's tail, Pohang Steel Art Festival, Pohang, Korea

2017 The New Vision: from Bauhaus to A.I., M contemporary, Seoul, Korea

APMAP 2017 Jeju mystic birth, Seogwang Tea Garden / OSULLOC, Jeju, Korea

Voice of Asia. ARARIO GALLERY Shanghai, Shanghai, China

Rediscovery of Colors, Museum SAN, Wonju, Korea 2016 Mediated Memory, Songgwangsa temple, Suncheon, Korea DNA, Daegu Art Museum, Daegu, Korea 2015 Artificial Fairyland, Suzhou Jinji Lake Art Museum, Suzhou, China Mindful Mindless,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OMA), Seoul, Korea PrøveRommet, Landmark, Bergen, Norway Cheori Cheolcheol, POSCO Art Museum, Seoul, Korea Tools for a Break: Korean Craft & Design, Galerie Rieder, Munich, Germany 2014 Korea Tomorrow 2014, DDP, Seoul, Korea Ode to Youth, HoMA, Seoul, Korea By Destiny, ARARIO MUSEUM Tapdong Cinema, Jeju, Korea Sound Sculpts the Space, Pohang Museum of Steel Art, Pohang, Korea APMAP 2014 Jeju BETWEEN WAVES, Seogwang Tea Garden/OSULLOC, Jeju, Korea Bridge, to the Future, Taehwa River Eco Art Festival, Ulsan, Korea 3D Printing & Art,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Re-imagination, Ilwoo space, Seoul, Korea 2012 Changwon Sculpture Biennale, Totland, Changwon, Korea Geumgang Nature Art Biennale, Yeonmisan Nature Art Park, Gongju, Korea TINA B. Contemporary Art Festival, Prague, Czech Republic Jing'an International Sculpture Project, Jing'an Sculpture Park, Shanghai, China Korean Eye, Saatchi Gallery, London, UK Brain, Savina Museum of Contemporary Art, Seoul, Korea Interface, Uijeongbu Arts Center, Uijeongbu, Korea Artists with Arario 2012, ARARIO GALLERY Cheongdam, Seoul, Korea 2011 Ceramic Art & Technology, Hangaram Art Museum Seoul Arts Center, Seoul, Korea Moving Museum 2, Kumho Museum of Art, Seoul, Korea Welcome to Media Space, Gallery Jungmiso, Seoul, Korea MoA Invites, Museum of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10 2nd Incheon International Digital Art Festival, Tomorrow City, Songdo, Korea The Gate, Boutique Monaco Museum, Seoul, Korea Residence Parade,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Geometrical Illusion, Ilju & Seonhwa Gallery, Seoul, Korea First Decade, Seoul Museum of Art (Gyeonghuigung), Seoul, Korea 2009 Inaugural exhibition for POMA, Pohang Museum of Steel Art, Pohang, Korea No, Gwangju Museum of Art, Gwangju, Korea Space A, Space Gallery, Seoul, Korea Artists in Residence - Jahresausstellung der Frankfurter Gastkunstler, Frankfurt, Germany 6th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Outside the Box, Art Center, Cheongju, Korea Planet A, Ilmin Museum of Art, Seoul, Korea Propose7 vol.4, Kumho Museum of Art, Seoul, Korea Architectural Ceramics Now & New, Clayarch Museum, Gimhae, Korea 1st Incheon International Digital Art Festival, Songdo, Incheon, Korea Inaugural exhibition for Jeju Museum of Art, Jeju Museum of Art, Jeju, Korea Inaugural exhibition for Melanie Rio Gallery, Melanie Rio Gallery, Nantes, France The Exciting Art Museum: Meet The Kinetic Art, Gyeongnam Art Museum, Changwon, Korea Home & Away, The National Art Studio Goyang, Goyang, Korea Art and Synesthesia,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Intro, The National Art Studio Goyang, Goyang, Korea Seoul Design Olympiad 'Design is Air', Olympic Main Stadium, Seoul, Korea 2008 30th Special Exhibition, Kwanhoon Gallery, Seoul, Korea 5th Changwon Asia Art Festival, Seongsan Arts Halls, Changwon, Korea Asia Art Network, KEPCO Plaza Gallery, Seoul, Korea Salon de Living, Special Exhibition of Seoul Living Design Fair 2008, COEX, Seoul, Korea 2007 Mixed and Matched, Bitforms Gallery, Seoul, Korea 2006 Merz's Room, 4th Seoul International Media Art Biennale, Seoul Museum of Art, Seoul, Korea 1st Posco Steel Art Award, POSCO Art Museum, Seoul, Korea Magic Garden,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ngju, Korea

	Who's who, Hyundai Department Store Sky Dome, Seoul, Korea Space in Motion, Gallery The Space, Seoul, Korea			
2005	Sewoon Plaza Project, Sewoon Plaza, Seoul, Korea DigiScape, Gallery The Space, Seoul, Korea			
2004	STREAM,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Gallery, Suwon, Korea			
2003	Crystallization of Time, Dukwon Gallery, Seoul, Korea			
	Beyond Images, Dukwon Gallery, Seoul, Korea			
	Video on Demand, Gallerie PICI, Seoul, Korea			
	New Frontier, Daegu Culture and Arts Center, Daegu, Korea			
2002	Capturing Nine Colors, Youngeun Museum of Contemporary Art, Gwangju, Korea			
2000	Vision of 15 Minutes, Baeksang Gallery, Seoul, Korea			
1999	Another World, Hanwon Museum of Art, Seoul, Korea			
PUBLIC SHOWS				
2022	Vertical Garden, The RAUM Penthouse, Seoul, Korea			
	236 Silent Propagations, Panlong Tiandi, Shanghai, China			
2020	126 Silent Propagations, Hanwha E&C, Yeosu, Korea			
	Vertical garden, Daelim Industrial, Daejeon, Korea			
2010	The Breath of the Waves, National Ocean Science Museum, Uljin, Korea			
2019	Vertical garden, Daelim Industrial, Seoul, Korea Silent Propagation, Hanwha KINTEX, Ilsan, Korea			
2018	Beautiful replication, Samsung E&C, Seoul, Korea			
2010	Beautiful replication, Hanwha, Changwon, Korea			
	Triple garden, Hanwha Belvedere, Geoje, Korea			
2017	Triple Garden, Le Meridien Hotel, Seoul, Korea			
	Vertical Garden, DAELIM Acrosquare, Seoul			
	Second Host, Signiel Hotel, Seoul, Korea			
2016	Doubts about the Memory, SKMS, Yongin, Korea			
	Vertical Garden, Shinsegae Department Store, Busan, Korea			
2015	Colorful Stories, Nongshim, Seoul, Korea			
	Garden, SK View Park, Seoul, Korea			
2014	Vertical Garden, Raemian Gangnam Hills, Seoul, Korea			
	Vertical Garden, Gangnam Gwell Homes, Seoul, Korea			
	Invisible Propagation, Grand Hyatt Hotel, Incheon, Korea			
	Intrinsic Order, Lotte Mall, Suwon, Korea			
2013	The Progression of Silence, Johnnie Walker House Seoul, Korea			
	Radial Eruption, New World Development, Hong Kong			
2012	Assembling for Eternity – HMC, Hyundai Motor Company, Seoul, Korea			
2012	Assembling for Eternity, Government Complex Sejong, Sejong, Korea			
	Aero-interface, Shinsegae Department Store, Cheonan, Korea Silent Propagation, IFC Seoul, Seoul, Korea			
	Soft Crash, Cheongshim Peace World Center, Gapyeong, Korea			
	Twenty-five Silent Propagations, Junghakwon Bldg., Seoul, Korea			
2010	A Host, POSCO E&C, Songdo, Korea			
	RMANCES (with 'Assembled Fantasy')			
2011	White Interfaces, Gallery Jungmiso, Seoul, Korea			
	(Artist: Byoungho Kim, Sound Artist: Eunhee Cho)			
2009	minimize to MAXIMIZE, Space Theater, Seoul, Korea			
2000	(sound programming: Lobotomy, artist: Byoungho Kim)			
2009	Continuum, The National Art Studio Goyang, Korea			
2009	(Solo drum artist: Yang Tae Seok, Performer: HwaHwa, artist: Byoungho Kim)			
2008 2008	Flower Fire, club Oi, Seoul, Korea (Performer: HwaHwa, artist: Byoungho Kim) Industrial Music Performance, Seoul, Korea (Performer: DJ Quartz, artist: Byoungho Kim)			
2000	maastrai wasic i eriormance, seodi, korea (renormer. Di Quartz, artist. byodilgilo killi)			
AWARDS				

<u>AWARDS</u>

2011 Young Artist Award, Seoul Culture Today, Korea

2006 Selected Artist, 1st POSCO Steel Art Award, POSCO TJ Park Foundation, Korea

RESIDENCIES

2015 USF Verftet, Bergen, Norway
 2009 4th Artist in Nanji Art Studio, Seoul Museum of Art, Korea
 2008 Kunstler im Kulturamt Frankfurt am Main, Germany
 5th Long-Term Artist, The National Art Studio Goyang, Korea

SELECTED COLLECTIONS / PUBLIC INSTALLATIONS

2021	Drawing for 'A Colloidal Body' (2010), Seoul Olympic Museum of Art (SOMA), Korea
2019	Three Hundred Silent Pollens (2009),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2018	A Section of the Garden, Pohang Cultural Foundation, Pohang, Korea
2017	An Interface, Art Bank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
	Mediated Memory 3SBCP, Amore Pacific Museum, Yongin, Korea
	Triangular Garden, ARARIO MUSEUM, Jeju, Korea
2013	Soft Crash, Amore Pacific Museum, Yongin, Korea
2011	Radial Eruption, ARARIO COLLECTION, Cheonan, Korea
	A Colloidal Body, ILSHIN Foundation, Seoul, Korea
	Triffid, Museum of Art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10	Triffid, Jeju Museum of Art, Jeju, Korea
	Horizontal Intervention, Seonhwa Art and Culture Foundation, Seoul, Korea
2009	The Weight of the Accumulation, Clayarch Gimhae Museum, Gimhae, Korea
	Drawing for Propagation between Two Silences, Kulturamt der Stadt Frankfurt am Main, Germany
	Sounds from the Sky, MelanieRio Galerie, Nantes, France
	Silent Monument, Art Bank of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Gwacheon, Korea